

안녕하세요? 유관순 언니! 언니의 이야기를 책에서 읽으면서 자랑스러움, 분노, 두려움 같은 많은 감정을 만났어요. 나라를 잃고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독립운동을 한 언니가 너무 대단하다 생각했지요. 언니에게 "자신의 죄명을 인정합니까?"라는 어이없는 질문을 던진 일본 판사가 너무 얄밋고 화가 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언니! 충 말을 대고 잇는 일본경찰이 무섭지 않았어요? 저라면 무서워서 벌벌 떨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독립의 뜻을 굽히지 않은 언니의 용기와 애국심 덕분에 우리 민족의 자부심은 커졌고 우리나라는 독립을 맞이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언니가 우리나라에 계셨다는 걸 전세계에 자랑하고 싶대니까요. 언니는 일본 경찰들의 심한 고문을 애국심으로 버틴 거 알고 있어요. 애국심이 얼마나 귀중한지 차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심한 고문을 당하고도 끝까지 견디신 걸까요? 저는 가끔 독립운동가분들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할 때 지금의 대한민국이 없을까도 모른다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정말 언니가 뜻을 펼치기



앉았다면 독립운동의 시작은 힘들었을 거 같아요. 언니가
독립운동을 펼쳤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들에 의해 일찍
세상을 떠났다 생각하니 너무 슬퍼요. 그렇지만 언니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어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너무 훌륭하고
좋은 나라가 되었어요. 언니도 많이 자랑스럽죠?
우리 국민들이 언니의 공생적인 마음과 애국심을 마음
깊숙이 나누어 가진 덕분이 거 같아요. 그리고
언니에게 '한국의 잔 다르크'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 말보다는
언니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유관순' 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니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역사 속에 딱 한 명인
'유관순' 언니니까요. 그럼 유관순 언니, 안녕히 제세요.

